“비건버거 맛있어요”…고교생들 ‘입맛에 딱’

화엄사, 정광고서 비건버거 시식
비건버거 800개 학생들에게 제공
덕문 스님 “불교 생명사상 알려”
시식 학생들 “환경에 좋다” 호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가 11월 29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에서 비건버거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화엄사가 제작한 비건버거가 현역 고등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찰에서 제작하는 비건버거 출시로 큰 화제의 중심이 된 화엄사(주지 덕문)가 11월 29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교장 이동배)에서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화엄사 비건버거는 채식을 기반으로 만든 버거로, 화엄사는 별도의 상표와 식음료 등록을 마치고 일반인 판매에 앞서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늘 이사장으로 햄버거를 사줬는데, 이번에 화엄사 이름으로 비건버거를 출시해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전달하게 됐다”며 “우리 식재료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비건음식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비건 음식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덕문 스님은 “현재 화엄사 입구에 1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향후 선화여고 등 불교종립학교에서 시식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일정을 소개하며 “수익금은 대학생 전법기금과 지역사회에 환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광고등학교에서는 800개의 비건버거와 콜라(600만원 상당)가 시식음식으로 제공됐다.

첫 시식을 한 정광고등학교 이세영(2학년) 학생은 “사실 비건버거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다”며 “비건 음식은 가축들의 온실가스를 절감해 환경에도 좋고,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버거는 고기의 맛이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먹어 보니 맛과 식감이 고기와 닮아있고, 시중에 파는 버거보다 훨씬 좋았다”고 밝혔다.

화엄사 비건버거는 콩단백질을 재료로 만든 비건 패티와 우리 쌀로 만든 쌀빵이 번으로 사용된다. 치즈와 소스도 순 식물성 재료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버거는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고급 수제 햄버거 매니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구현해 내는 데 목표를 두고 개발됐다.

화엄사는 내년 3월 비건버거 1, 2호점을 오픈하고, 비건 피자, 음료와 아이스크림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다.

상진 스님, 전북특별교구 순시…격의 없는 소통 행보

11월 23일 전주서 환영법회 봉행
종도와 자유토론 진행, 의견 수렴
향산 스님, 전북교구와 대화 시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은 11월 23일 총무원장 상진 스님 방문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원장 혜암, 모악사 주지)은 11월 23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북특별교구 방문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국 교구 종무원을 순회 방문하면서 태고종단의 정책을 설명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전북특별교구 방문 환영법회에는 전북특별교구종무원장 혜암 스님, 전북특별교구 원로위원장 향산 스님, 원로의원 일허 스님, 중앙종회의원 진공 스님을 비롯한 특별교구 소임자 스님들과 전법사들이 참석했다. 총무원에서는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과 총무원 소임자스님들이 배석했다.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혜암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축하난과 꽃다발을 전달했고, 상진 스님은 혜암 스님에게 팔만대장경 목판본을 선물했다.

전북특별교구종무원장 혜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교구종무원은 작은 규모이나 가족적인 분위기로 활동하고 있다”며 “총무원장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협조해 태고종이 더욱 발전하고 최고 전통의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교구 원로위원장 향산 스님은 “전라북도는 두 개의 교구가 양립된 상황에서 여러 갈등이 내재돼 있다. 하지만, 필경에는 ‘하나로 운집돼야 한다’는 전제로 대화합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대가 변해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사스님들의 기치와 수행력을 본받아 열심히 수행하고 화합 단결하는 것이 승가의 전통적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역대 원로스님들의 가르침과 종도들의 단합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태고종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종단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어른 스님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종도들의 화합과 단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종도들의 발판이 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진 스님과 종도스님들은 격의 없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상진 스님은 “지방 교구종무원에서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총무원에서도 거절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민원과 관련해 종도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태고종 종도로서 승적과 관련해 입종과 전종의 벽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상진 스님은 “종단의 입종과 관련해서는 지방 교구종무원장의 책임하에 입종을 허락하고 있다”며 “총무원에 전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탈종스님들의 재입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신앙 신봉 견훤왕, 원찰은 금산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1월 24~25일 학술대회

‘후백제 불교와 금산사’ 주제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서 열려



후백제 불교와 견훤, 김제 금산사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은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 ‘후백제의 불교와 김제 금산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송화섭 중앙대 교수(前 후백제학회장)가 ‘후백제 견훤대왕과 금산사’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송화섭 교수는 〈삼국사기〉에 기술된 견훤왕의 금산사 유폐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양위하자 신검이 아버지 견훤왕을 봉양하고자 금산사로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근거로 금산사의 방등계단과 홍예문은 왕을 유폐할 목적에서 세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교수는 “견훤왕은 미륵신앙의 신봉주의자였다. 익산의 금마산 백제 건국설은 백제의 역사와 사상을 잇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며 미륵사 개탑설은 백제 미륵사상을 정치이념으로 국가운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견훤왕의 미륵신앙은 금산사에서 발원한 진표율사의 미륵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듯하다”며 “금산사는 견훤왕이 자주 왕래하던 원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는 “송화섭 교수의 금산사가 견훤의 원찰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금산사는 견훤이 중창한 사실이 확인되는 유일한 사찰이고 아들 신검이 견훤왕을 금산사에 유폐한것도 부왕이 평소 자주 방문하던 사찰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후백제가 남긴 교훈과 1400년의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금산사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전북과 김제, 그리고 금산사를 중심으로 역사유적과 불교문화 전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대 종교 함께 담근 김치 이웃에 전해지길”

태고종 전북종무원 ‘사랑의 김장나눔’ 동참

11월 27일, 전라북도청서
350세대에 각 6kg씩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탑사 주지)과 (사)붓다봉사단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23 국민대통합 사랑의 김장나눔 연합봉사활동’에 동참했다.

11월 27일 전라북도청 야외주차장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태고종 전북교구외에 원불교 봉공회, 천주교 전주교구, 동현교회 등 종교단체와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국민연금공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건강관리협회, 전북신용보증재단 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절임배추 800포기 2230kg (절임배추 1600kg, 양념 630kg)의 김장김치를 담궜다.

이날 담은 김장김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350세대에 각각 6kg씩 전달됐다.

태고종 전북교구에서는 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현진 스님, 사회국장 법정 스님, 현담 스님, 이재현 붓다봉사단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고영호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담근 김장김치를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겠다”며 “상생과 연대를 위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이웃종교 종단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며 “이제 다가올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는 “전국의 김장재료를 하나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는 대통합 매개를 마련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며 “오늘 동참하신 봉사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백미 200포 전달

11월 28일 광주 서구청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11월 28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백미 10kg 200포(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최성휴 고문, 김용섭 신도회장, 황선자 여자회장, 정성택 신도회 총무,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김용섭 신도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신도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준비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강 청장도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2010년부터 매년 2000kg씩 올해까지 13년째 자비의 쌀을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소원정사, 20년 이어온 지역 자비행

11월 29일 사찰 앞마당서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11월 29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20회 나눔 및 제14회 연꽃상 시상식’을 봉행하고 부설기관인 연꽃향기자비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백미 10kg 1300포와 1500만원 상당의 가방, 의류를 광주 동구, 남구, 북구, 자비신행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백미와 물품은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8개 도시에서 모연한 것으로, 각 지자체와 불교단체가 추천한 저소득가구에 전해질 예정이다.

도계 스님은 “후원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1300포와 물품이 모연됐다. 소원정사 신도들과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소원정사는 지난 1년간 모범적으로 신행활동을 한 최유리, 김소정, 이동욱 불자에게 봉사상과 상금도 수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남암, 아미타삼존불 봉안법회

11월 25일 극락보전 낙성도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가 11월 25일 산내암자 남암에서 아미타삼존불 봉안과 극락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남암은 화엄사의 8원 81암자 중 안지원 옛터를 복원하여, 최근 새 도량을 일신하면서 이날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을 새로 건립하고 아미타삼존불을 점안했다.

낙성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前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비롯한 화엄사 본말사 주지스님과 신도 등이 참여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삼 스님께서 묵은 터전에 일찍이 도량을 새로 일구느라 고생하셨다”며 “화엄사 옛 암자 터에 남암을 건립해 화엄사의 숙원을 풀어주었고, 여법한 암자가 생겨 수행과 전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이어 스님은 “남암이 수행도량으로서 법등과 향화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축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관음사 제4회 지구생명살림 공양대제



창건 108주년을 맞은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가 11월 26일 ‘2023 제4회 지구생명살림 관음사 삼천불공양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90년대에 봉안된 관음사 삼천원불을 새로 개금봉안하면서 ‘1인 1부처님 인연맺기’를 통해 훼손된 삼천분의 소원불을 다시 소생시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주지 소운 스님은 “관음사는 충장로에서 시작해 충장로와 함께 10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번영과 힘겨운 시절도 보냈다. 앞으로 불자들의 신행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지역 충장로에서 지역민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음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을 대신해 김병철 충장동장에게 자비나눔공양금 100만원과 청소년활동대상 학생 4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덕원사 창건 25주년 개산대재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가 창건 제2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11월 19일 덕원사 신도회, 지장회, 산악회, 추모관의 주관으로 봉행된 덕원사 창건 25주년 개산대재는 강한설 신도회장의 사회로 명종5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연혁보고, 감사패 증정, 봉행사, 봉축사, 축사,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덕원 스님은 “덕원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울산 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 개원한 울산 덕원사는 2007년 설법전, 2010년 대웅전과 나한전을 중창했으며 2022년에는 덕원사 추모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석가설법도가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